



**정태두 성실 대표, 마스크 49만장 교육청에 기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주)성실(대표 정태두)로부터 마스크 49만장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감염병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인증제품으로, 9,790여만 원 상당이다.

전북교육청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보내 각급 학교에 전달해 미세먼지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주)성실은 1997년 유·소아와 성인 내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출발해 현재 KF-94마스크, 성인복, 골프웨어까지 생산 노하우를 갖춘 OEM 전문기업이다.

정태두 대표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도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행 남원지점, 고향사랑 17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전북은행 남원지점(지점장 박은영)이 지난 26일, 시청(시장 최경식)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7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남원지점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첫해인 2023년 1,000만원, 2024년 1,500만원, 올해 1,700만원을 기부, 누적기부액 4,200만원을 달성하며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남원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은영 지점장은 "전북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남원시민들께 보답할 방안을 늘 고민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화합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전북은행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매년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해 주시는 전북은행 남원지점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인석 만성산업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유)만성산업 전인석 대표가 27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유)만성산업은 모래, 자갈, 산립 골재 채취 및 혼합골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전 대표는 순창군 동계면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계기로 순창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인석 대표는 "비록 순창이 제 고향은 아니지만, 사업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일 기자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회원들이 27일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3백30만 원을 기탁했다.

이종선 회장은 "지금은 타향에서 살고 있지만 회원들 모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며 "고향 무주를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출향인들로 구성된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는 회원이 총 50명으로 2014년부터 차량 50대를 활용해 매회를 활용한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한 농특산물, '고향사랑 무주사랑(고향사랑기부제)' 등 무주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성료

임실군, 이진관 부군수 등 60여명 참석... 청용면 석두리 일원에 편백나무 1500그루 식재

임실군이 지난 26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산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나무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진관 부군수, 정희석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임실군청 공무원, 임실군산림조합 등 60여 명이 함께 지리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조림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산불 예방 홍보에도 힘쓴 뜻깊은 자리였다.

청용면 석두리 산23번지 일원에서 진행했으며, 1ha 규모의 면적에 편백나무 1,500그루를 식재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다량 방출하여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며,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산림자원으로의 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 봄철 조림 사업에 1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림조성 185ha, 큰나무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35ha, 내화수림대 10ha 등 총 250ha 규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편백, 백합, 상수리, 낙엽



송 등 6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진관 부군수는 "최근 산림이 단순한 녹지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 흡수원, 건강 증진, 관광 자원 등 다각적인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군은 지속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미래형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기자



농협 무주지부 등, 영농지원발대식·폐기물수거 캠페인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농가주부모임(회장 백혜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영농지원 발대식(이하 발대식)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과 캠페인은 농협 임직원과 무주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무주군 안성면 과수농가 및 주변에서 전정목 제거작업과 폐비닐류 수거작업을 펼쳤다.

농협 무주군지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농번기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일손돕기를 계획 중이며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농촌인력 지원체계를 만듦으로써 노력하는 중이다.

곽동열 조합장은 "무주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분들과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으로 환경보호도 일조하고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앞으로 더 바쁜 영농철 취약농가에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며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을 위해 농협이 두발 걷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덕과면,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협약 체결

남원시 덕과면(면장 성월계)은 지난 25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덕과면장, 덕과파출소장, 남원농협 덕과지점장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덕과면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일 1가구 방문과 연계, 주민을 찾아가 주요 사기수법을 안내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덕과파출소는 지역 내 주요 직능단체(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농협 덕과지점은 고객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는 고객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성월계 면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을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덕과면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조합원 자녀 농촌 희망 장학금 전달식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26일 조합정실에서 다문화 가정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농촌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관내 초·고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정용 김제농협 조합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김제농협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모든 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농협은 매 해마다 관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여성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여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동태 기자

제5대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 출범식·성금 345만원 기탁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오은정)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군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합원 345명의 연원을 담은 성금 345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기탁식에 참석한 오은정 위원장은 "출범식을 치르는 대신, 지역사회에 작은 온기를 전하는 것이 노조 출범에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라며, "공무직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조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공무직노동조합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은 '동등한 권리, 행복한 일터, 발전하는 노조'라는 목표 아래 앞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



지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질서 바로잡기... 상인·시민 편한 쇼핑 환경 조성

정읍시 샘고을시장이 민관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거듭난다.

시는 지난 26일 샘고을시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상인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샘고을시장 기초질서 확립 민관 합동지도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민관 합동지도와 캠페인에는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과, 건강증진과, 시가동 등과 샘고을시장상인회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합동지도는 초산로와 시장 내부 점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전통시장 내 고객선 준수와 적치물 이동조치 등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또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공제 가입 홍보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쳐졌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합동지도·캠페인을 통해 시장의 기초질서를 정착시키고 고질적인 불평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필수"라며 "상인들이 솔선수범해 고객선 준수와 적치물 정리 등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인들과 힘을 모아 고객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샘고을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다른오름, 한라실비집과 전통주 판매 계약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다른오름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지웅)이 지난 26일 한라실비집(대표 전준수)과 전통주 판매계약 및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의 국가기술개발사업 서비스 사업 성과로 추진됐다. 이에 다른오름은 전주 웨리 단길 한라에서 판매할 P.B(Hivate Brand) 전통주인 「한라막걸리」를 생산·납품하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를 앞두고 있는 한라의 브랜드 콘셉트에 적합한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개발하며,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구성·판매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다른오름은 미래융합대학 농식품경영학과 김지웅 교수의 교원창업기업으로, 국내 농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 제품과 누룩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정읍성 기자



남원 동통동 지사협, 한우만가에 착한가게 환판 전달

남원시 동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27일 착한 나눔 정기가부에 동참한 한우만가 대표 오성규에게 착한 가게 38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점이나 기업으로, 이를 통해 상점이나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성규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소선자 동통동장은 "착한가게 후원자 동참을 감사드리며, 후원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치있게 나누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